— 其 二 —

A STUDY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SOCIAL WORK IN KOREA

서울大學校 社會事業學科
副敎授 南 世 鎭
Associate Professor Nam, Sae-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目 次

머리말
Ⅰ. 最近의 動向
1. 開發的 機能의 具體化
2. 現實參與에의 强調
3. 巨視的 水準으로의 擴大
4. 大學敎育目的의 定着
5. 새로운 問題—실험대학
Ⅱ. 敎科課程에의 反映과 問題
1. 變 化
2. 問題와 課題
Ⅲ. 結 論
參考文獻 및 資料
英文要約

머 리 말

우리나라 社會事業敎育은 1950年代 後半 大學에서 獨立學科로 出發한 以來 오늘날까지 많은 試鍊과 問題에 부딪혀 오고 있다. 그것은 社會事業이 순수과학이 아닌 實踐科學이며 科學性과 技術性 兩面을 지닌 學問이기 때문에 特히 그러하다고 하겠다. 第一部에서 指摘한 바와같이 敎科課程의 立場에서 본다면 社會的 要請에 따라 變化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우리나라의 社會事業敎育은 美國의 敎科課程을 그대로 옮겨서 出發하였기 때문에 우

* 이 論文은 1974年 筆者가 發表한 韓國社會事業 敎科課程開發을 爲한 硏究統合的 接近의 序說的 考察을 第一部로 하고 이에 이어 第二部가 된다.

第1部에서는 美國의 大學院水準에서의 敎育을 위한 敎科課程 모델이 우리나라의 大學水準敎育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순점과 문제를 敎育目的과 社會的 要求 그리고 資源의 側面에서 分析하였으며 아울러 社會事業敎科課程上, 基本的 槪念構造는 存在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國際的 會議의 結果를 引用하여 社會事業이 國家開發과 社會開發에 기여하여야 하며 社會事業이 開發的 機能을 수행하기 爲해서는 교과과정에 統合的 接近方法을 적용하여야 함을 理論的 現實的 근거를 기초로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特殊化나 專門化를 爲한 敎育에서 總括的인 敎育으로 變化하여야 하고 특수 개인이나 집단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것에서 地域社會나 一般國民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하여 考慮되어야 할 事項으로서는 實習機關과 指導者 資格, 敎育資料와 敎育者의 質的 量的 不足 그리고 專門으로서 認識과 취업기회의 不足 等을 지적하였다[1].

本 論文(第二部)에서는 그 후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變化와 事件들을 敎科課程再構成의 方向과 채택할 내용이라는 면에서 다시 정리하고 現在의 교과과정에의 반영상황을 개관한 다음 이에 따르는 문제와 과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社會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수립함에 한 발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래사회의 사회사업에 대한 要請을 구상함에 있어 보다 充分한 資料를 活用하지 못하여 抽象的이고 理論的인 豫測으로 기울어진 部分이 많고 同時에 現在의 社會事業敎科課程에 對한 科目別 目的과 內容 그리고 敎育方法을 만족할 만큼 具體的이고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을 밝혀야 하겠다.

Ⅰ. 最近의 動向

1974年 以後 國際社會事業大學協議會가 주관한 會議가 2次 있었다. 이들 모임의 目的은 從來 社會事業敎育이 當面했던 여러문제를 보다 分明하게 그리고 具體的으로 파악함과 등시에 社會事業이 수행하여야 할 役割을 現實的으로 규정함에 있었다. 따라서 敎科課程 수립에 있어 보다 뚜렷한 方向에 目標가 設定될 수 있었다. 또한 國內에서 있었던 5次의 社會事業敎育會議는 大體로 敎科課程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국제회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 지게 되었다. 이들의 結果를 다음과 같이 要約 해석할 수 있겠다.

1. 開發的 機能의 具體化

第1部에서 論했던 바와 같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社會事業의 役割은 治療와 豫防에 더하

註 1) 남세진, "한국사회사업교과과정 개발을 爲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창간호, 1974,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어 開發的 機能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이러한 機能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1974年 以後의 國內外 모임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며 보다 具體的 方案이 提示되기도 하였다. 1974年 7月에 있었던 국제회의에서는 國家開發事業에 사회사업이 참여할 것과 同時에 參與分野 및 方法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1973年 8月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에서는 國家開發事業의 일환인 새마을운동을 사회사업과 비교해 봄으로써 사회사업의 역할과 참여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정신적 가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方法上에 있어서는 部分的이나마 社會事業理論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2].

1974年 3月에 가졌던 國內會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社會開發에서 社會事業이 할 수 있는 役割이 어떤 것인지를 理論的인 側面에서 體系化하고 開發的 機能을 수행하기 爲한 敎科課程上의 수정을 試圖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유엔의 권유를 全的으로 받아들이면서 人口成長率의 감소, 住民들의 再定着, 家庭分裂 兒童 및 靑少年, 心身障碍者, 社會防衛 等의 문제가 있는 分野에 社會事業이 參與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敎科課程上에는 人口의 力動과 家族計劃, 社會開發論, 統合的 方法論, 社會問題, 社會調査, 社會政策 및 計劃 等이 새롭게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3].

이 外에도 開發的 機能을 수행하기 爲해서 必要한 社會福祉政策, 社會調査, 實習 等에 있어서의 敎科內容에 對하여 보다 상세한 試案이 提起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사업방법—케이스 웍, 구룹웍, 지역사회조직사업—의 活用方案도 보다 具體化 되어졌다. 社會正義 具顯과 人的資源의 質質向上 住民의 참여 태도나 제도의 近代化 구조적 개혁 等 開發的 課題를 수행함에 기본적 방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始作된 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名實共히 社會開發을 爲한 기반조성의 시기로 方向이 지워져 있음으로서 우리나라 社會事業敎育은 이에 對備한 科敎課程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立場이 있다고 하겠다[4].

2. 現實參與에의 强調

1974年에 있었던 國際會議가 社會開發에의 參與에 있어서 社會事業의 具體的 役割을 밝힌 것이라 한다면 1976年의 그것은 社會開發이라는 좀 막연한 槪念을 各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現實的問題와 관련시켜 細分化 하였고 이에 對한 社會事業의 적극적 反應을 各國家의 歷史的 社會的 經濟的 맥락속에서 찾아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 世界를 大陸을 基準으로 區分하여 各 地域에 있는 國家가 가지는 共通的인 重要社會問題를 찾았다. 아

2) 사회사업교육자세미나 자료집, 1973,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pp. 5~8.
3) 張仁協 "社會事業敎科 課程의 構想" 사회사업교육자세미나자료, 1977, 3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4) 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社會開發—, 1976, 韓國開發硏究院
5) A. Almanzor: Social Realities and The Response of Social Work Education in Asia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chool of Social Work.

의 격차 등이 중요문제로 지적되었다. 사회사업교육은 이들 사회적 현실과 관련되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大部分의 國家의 사회사업교육은 西歐에서 敎育받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아니면 西歐敎科課程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의 각도가 서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勿論 어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開發的 社會福祉活動을 펴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시아에 있어서 사회사업교과과정의 토착화에 대한 요청은 매우 强하지만 敎育者나 시설 장비의 부족, 실습 환경의 미비 등 현실적 제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各 國家는 그마다의 國家計劃과 優先順位 範圍 속에서 교육 목적을 찾아 새로운 형태의 교과과정 참조가 부득이한 것이다. 이런 面에서 본다면 아시아 국가는 人力開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더하여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강조하도록 도우고 현실 문제를 다룸에 보다 과학적인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한다[6]. 실습교육을 통하여 敎育者와 實踐家 學校와 地域社會間에 의사소통의 紐帶가 수립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적 상황이나 계획은 사회사업학교로 하여금 새로운 과제를 창안하고 교과내용을 수정하여 실습기관을 확대하도록 자극과 격려를 준다. 大學의 敎育者는 정부나 기관에 자문을 하게 되어 부족한 고급인력을 代身할 수도 있는 것이다. 特히 調査活動에 학교가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보다 가까와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며 나아가 교육자료의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7]. 1977년에 있었던 2次에 걸친 국내사회사업교육세미나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急變하는 社會變動에 수반되고 社會的 要求에 効果的으로 대처하는 敎育을 다짐하였으며 사회사업이 참여하여야 할 분야를 찾고 수행해야 할 역할을 發見하려 노력한 것이었다. 보다 새마을운동과 산업사회분야에 사회사업가가 할 일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교과과정상의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다[8].

3. 巨視的 水準으로의 擴大

1960年代에 들어와서 社會事業의 役割이 特殊個人이나 集團을 爲한 活動에서 一般國民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活動으로 그 範圍를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 하다는 主張이 대두되었다[9]. 이 主張은 繼續 國內外의 호응을 받아 보다 具體的인 方法으로까지 發展되어 갔으며 1974年 以後에 와서는 敎科課程上에도 뚜렷한 區分을 가지게끔 試圖되고 있다.

전통적 사회사업교육 特히 미국 모델에 기초한 敎育은 主로 微視的 水準에서의 活動만을

6) Ibid. pp. 3~5.
7) 남세진 : 실습목표, 사회사업실습교육세미나, 1975,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8) 사회사업교육의 과제와 전망 토의과제, 1977,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9) 남세진. op. cit.

中心으로한 方法上의 技術을 強調한 데 反하여 開發的 機能을 수행하고 各國이 가지는 現實的 必要에 對應하기 爲하여서는 巨視的 水準에서의 參與가 무엇보다 必要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1976年에 있었던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의 세미나에서도 사회복지정책 및 계획과목이 반드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세부내용까지 검토하였으며 個人水準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國家나 地域社會水準에서의 社會問題를 다루고 해결함에 사회사업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點에 合意를 보았다. 이는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종래의 방법론에 더하여 새로운 목표를 과정에 추가하게 되고 사회사업교육의 목표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과정의 설치는 한 두 과목의 추가나 소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全體 敎科課程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는 相異한 두개의 知識體系에 基礎한 교과과정이 따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大學과 大學院이라는 相異한 水準에서의 敎育으로 區分되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時間的으로 볼 때 巨視的 接近의 構想이 開發的 機能의 그것보다 앞서 擡頭되긴 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社會開發에 따르는 社會事業의 開發的 機能에 對한 논의가 本格化 됨으로써 巨視的 接近도 同時에 다루어지게 되었다. "社會開發은 變化와 成長의 要求에 對處하기 爲하여 現存하는 社會體系의 能力을 向上하려는 계획된 介入의 巨視的 戰略을 함축하고 있다"는 表現에서도 社會開發과 巨視的 接近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10]. 社會開發 過程이 個人爲主의 범주에서부터 지역사회 전체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찾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11].

4. 大學敎育目的의 定着

最初로 우리나라에서 社會事業敎育이 大學에서 실시되었을 때 當時 美國의 敎科課程에 基準을 두고 구성하게 되었다. 美國의 大學院 敎科課程이 우리나라 大學에 適用되게 된 것이다. 1950年代 中半期까지 美國에서는 大學水準에서 사회사업을 교육하고는 있었으나 大部分 社會學科에 부전공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大學院 入學을 위한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사업학과로서 독립된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마치 의과대학 진학준비를 하는 의예과 과정과 흡사한 것이었다.

大學院 敎科課程을 大學에 적용시킴에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 면에서 지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과목을 이해 수용하고 실제로 활용함에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동기결여와 지적 정서적인 미숙, 그리고 학문적 준비의 미비 등의 문제이다. 거기에다가 6年間의 敎育을 4年間으로 단축시킴에 따르는 문제가 또한 심각한 것이다. 더우기 大學과 大學院 간을 구분하다가 매우 곤란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사회사업교육에 있어 커다란 시련

10) P.D. Kulkani: Social Development Newsletter. March, 1974, p.15. ESCAP.
11) 張仁協 : op cit. p.10, 1977.

한다는 긴박한 과제가 계속 등장하게 되었다[12].

이 문제는 事實上 아시아지역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大部分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이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까지는 社會 業敎育을 大學院 수준에서만 本格的으로 實施한다는 것이 거의 原則으로 받아 들여져서 學水準敎育 自體를 위한 독자적 목표설정에 具體的인 努力은 거의 하지 않았다.

前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970年代에 들어와서 社會事業敎育은 그 나라 固有의 狀況에 맞추고 國家開發과 社會的 要求라는 맥락 속에서 役割을 發見해야 한다는 主張에 受容的 態度가 强하게 되자 점차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 이젠 사회사업교육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13]는 국제사회사업대학 협의회장의 선언이 이제 現實的인 實現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大學水準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大學卒業者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실마리를 提供한 것이 第一部와 前章에서 밝힌 것들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독립된 사회사업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게끔 교육한다는 目標, 大學水準의 교과과정에 설정된 것이다. "實踐에 對備하기 위한 社會事業敎科課程은 大學水準에서의 社會事業實踐에 적절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學生에게 부여하여야 한다"[14].

全世界 社會事業敎育을 主導하고 있는 美國에서도 大學水準의 敎育에 있어 독립된 전문 사회사업가를 양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되긴 하였으나 發展過程과 背景은 개발도상국가와는 전혀 다르다. 1950年代 中半期까지 大學에 독립된 학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 1960年代에 와서는 급증하였고 1970年에 와서는 215個大學에서 大學水準의 사회사업교육과정이 正式으로 인정받고 있다[15]. 社會事業學士(BSW)를 첫 전문학위로 인정하여 사회사업가협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것도 1970年이다. 要컨데, 미국에 있어서는 사회사업가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부족했었다는 사실이 대학수준의 교육을 시작하게된 근본적 동기이었다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모든 상황의 준비태세가 완전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16]. 그러나 아직도 大學水準에서의 社會事業敎育은 교양과정과 多少의 社會福祉 과목설치에 그쳐야 하며 직접적인 실천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大學水準敎育에 反對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17].

---

12) 남세진 : 사회사업교육과정, 한국사회사업교육자하계세미나 자료집, 1977, 8한국사회사업대학 협의회

13) H. Stein: Cross-National Issues in Social Work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aching, 1971, IASSW.

14)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71, Undergraduate Programs in Social Work pp. 12~13.

15)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Structure and Quality in Social Work Education 1974, N. T.

16) D. Brieland & others: Contemporary Social Work, 1975, Mc Graw-Hill pp. 398~399.

17) Ibid pp. 399~400

5. 새로운 문제——실험대학——

實驗大學制度가 되기 以前에도 社會事業敎育은 소속대학 또는 大學校가 다른 一般學科에 적용시키는 原則을 그대로 强要하기 때문에 敎科課程 作成上 매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왔었다. 社會事業은 전문분야이므로 獨立된 學科로서 취급받거나 독립대학 또는 大學院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現實的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습을 위한 시간배정이 매우 어려워 일주일에 하루만을 빼기조차 곤란할 정도이다.

실험대학제도가 채택되면서부터 졸업이수 학점이 160 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전공학점이 80에서 63으로 되었고 이 가운데 전공필수는 30학점으로 되어 있다. 학점단위도 大部分 3학점으로 統一되다시피 하여 실제적으로는 학과목의 數가 더욱 줄게 되었다. 同時에 실습을 위한 시간배정도 종전보다 더욱 줄게 되었다. 同時에 실습을 위한 시간배정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부전공제도 마저 생겨나서 주전공을 48학점 부전공을 24학점을 이수하면 사회사업 주전공과 다른 학과 부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과 63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원칙적으로 구분을 하여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교육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수할 과목의 선정이 急先務이다. 보조사회사업가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에 대한 교양과목을 이수한 정도로만 취급할 것인가? 大學院 進學의 경우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과제이다.

요컨데 실험대학의 취지가 大學水準에서 전문교육을 피하고 교양교육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사업교육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된 조건하에서 과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수행의 능력을 가진 사회사업가를 배출할 교과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無理가 아닐 수 없다. 16개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니 과연 16개 과목으로 사회사업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 있겠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Ⅱ. 敎科課程에의 反映과 問題

1. 變 化

우리나라 初期의 大學 敎科課程은 美國 모델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社會事業方法을 中心으로 짜여져 있었다. 1958年과 59年代에 梨花大學校와 서울大學校에 社會事業學科가 각각 설치되고, 1963年과 64年에 中央大와 聖心女大에 각각 설치되었다. 이들 4個大學의 敎科課程은 먼저 생긴 학교의 敎科課程을 참조하여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어 있었다. 이 80學點의 課目 構成을 보면, 대체로 社會事業方法과 實習, 概論, 原書講讀, 行動의 理解, 特講 그리고 몇 개의 社會事業 分野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大學校의 例를 보면, 社會事業學科에서 제공하는 專攻學點이 84學點이었고, 課目 구성을 보면 社會事業方法 30학점, 原書講讀 16학점, 行動의 理解 12학점, 實習 8학점, 概論 6학점, 特講 6학점, 兒童福祉 3학점" 公的扶助 3학점으로 되어 있었다[16] 또한 84학점 가운데 필수가 66학점, 선택이 18학점이었다. 당시 케이스·웍을 필두로 한 社會事業方法과 精神醫學과 心理學 理論에 기초한 人間行動의 理解가 중심이 되어 治療的 機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敎科課程 모델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美國의 영향권 내에 있는 世界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美國 社會事業家協會가 인정하는 專門社會事業家를 養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敎科課程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60年代 中半 이러한 모델과 경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批判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社會事業敎育에 대한 評價의 機會가 있었다. 形式上으로는 美國 모델에 충실하였으나 內容과 質的인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은 어느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65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社會事業敎育연찬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이제까지 지니고 온 고민과 問題를 털어놓게 되었고, 이 때를 基點으로 敎科課程上에 變化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第1部와 前章에서 밝힌 內容의 자극과 격려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韓國의 實情에 알맞게 調整되고 가르쳐야 한다." "國家의 必要와 學校 資源에 맞추어야 한다"[19]는 主張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 脫美國 모델의 歷史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오늘날까지 地域社會 開發을 위한 敎育, 國家開發과 社會開發 家族計劃事業, 巨視的 수준의 産業社會에의 參與, 나아가서는 80年代를 향한 社會事業敎育 등으로 확대,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敎科課程에 내포되고 소화되어 技術的으로 적절한 構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 時間과 努力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 敎育關係分野나 人士만이 아닌 다른 與件과 制度의 變化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 같다. 換言한다면, 變化를 위한 部分的인 主張은 있되 이를 統合하는 意見의 提示는 없으며, 社會事業 分野의 限定된 부분에서의 認識은 되었으되 學校나 關係당국, 그리고 社會 一般에서의 認識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敎科課程이 비록 初期에 비하여 많은 變化가 있었지만 아직 第1部와 前章에서 밝힌 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정도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많은 問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1977年 현재 우리나라 정규 4年制 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敎科課程을 보면 다음〈表〉와 같다.

---

18) 서울大學校 敎科過程表, 1959年.

19) 社會福祉敎育 연찬회, 1965, 보건사회부 p. 41.

1977년도 8개대학 사회사업 학과 교과과정표

학과목명	대학수	학점 학점수	학점 대학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년 학년	학년 대학수	성심여대	숭전대	한사대	부산대	서울여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대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	8	2 3 6	1 5 2	7	1	1 1. 2 2	3 1 4	○	○	○	○	○	○	○	○
인간행동과 환경(발달)	8	3 6	3 5	4	(5 4	2 2. 3	7 8	○	○	○	○	○	○	○	○
사회복지 발달사	6	2 3	1 5	2	4	1. 2 2 3	1 4 1	○	○	○	○	○	○	○	○
Case Work	7	3 6	4 3	6	3	2. 3 3	2 5	○	○	○	○	○	○	○	○
Group Work	8	3 4 6	6 1 1	6	4	2 2. 3 3	1 1 6	○	○	○	○	○	○	○	○
C.O	7	3 6	5 2	5	3	3 4	7 2	○		○	○	○	○	○	○
사회사업조사	8	3 6	7 1	5	3	2 3	4 4	○	○	○	○	○	○	○	○
사회사업행정	8	3	8	4	4	2 3 4	1 4 3	○	○	○	○	○	○	○	○
사회복지정책(및 계획)	8	3	8	6	1	3 4	3 5	○	○	○	○	○	○	○	○
사회사업실습	8	6 7 9	5 1 2	8	2	3. 4 4	7 1	○	○	○	○	○	○	○	○
사회통계(통계학 개론)	3	3 4	2 1	1	2	2 3	1 2	○	○			○			
아동복지(청소년 복지)	3	3	3	2	1	2 3	2 1			○		○		○	
현대생활과 사회과학	1	6	1	1		1	1	○							
사회문제	8	2 3 6	1 5 2	1	7	2 3 4	5 2 1 1	○	○	○	○	○	○	○	○
영문강독(원서 강독)	6	3 4 6 14	2 1 2 1	2	4	1 2 3	4 1	○	○	○		○	○		○
사회입법	2	3 6	1 1	1	1	3	2	○		○					
사회 개발론(과 사회복지)	3	3	3		3	2 3 4	1 1 1	○						○	○
통합사회	1	3	1		1	4	1	○							

학 과 목 명	대학수	학점 학년수	학점 대학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년 학년	학년 대학수	성심여대	숭전대	한사대	부산대	서울여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대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	4	2 3	1 3		4	2 3 4	1 2 1	○		○	○				○
산업사회학	1	3	1		1	4	1	○							
청소년 연구	3	3	3	1	2	2 3 4	1 1 1	○		○	○				
사회 발달사	1	3	1	1		3	1	○							
도시 사회학	2	3	2		2	2 3.4	1 1	○					○		
임상 심리학	1	3	1	1		3	1	○							
사회 심리학	4	2 3	1 3	2	2	2 3.4 4	2 1 1	○	○	○		○			
노인학(복지)	3	2 3	1 2		3	2 4	1 2	○		○	○				
지역사회	1	3	1		1	2	1		○						
대인관계	1	3	1		1	3	1		○						
사회사업 연구	2	2 3	1 1		2	4	2		○			○			
사회사업 세미나(연습)	6	3 4 7	4 1 1	2	4	4	6		○	○	○	○	○	○	
장해자 복지	2	3	2		2	2	2			○	○				
의료사회사업(보건 및 의료 복지)	5	3	5		5	2 3 4	1 1 3			○	○		○	○	○
교정 사업	1	2	1		1	3	1			○					
가정 복지	5	2 3	3 2		5	2 3	2 3			○	○	○	○		○
C.D	2	3	2	1	1	3 4	1 1			○			○		
사회 보장	2	3	2	1	1	3 4	1 1			○	○				
상담 심리	1	3	1		1	3	1			○					
정신 사회사업	1	2	1		1	4	1			○					
공중 위생	1	3	1		1	4	1			○					
정신 위생	2	2 6	1 1	2		3 4	1 1			○		○			
공적 부조	2	2 3	1 1		2	4	2			○	○				

학 과 목 명	대학수	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년		성심여대	숭전대	한신대	부산대	서울여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대
		학점수	대학수			학년	대학수								
직업 지도론	1	2	1		1	4	1			○					
						2	1								
사회복지제도 비교론	2	3	2		2	4	1				○				○
사회복지 시설 운영론	2	3	2		2	3	2				○				○
슈퍼비젼	1	3	1		1	4	1				○				
사회사업 이론	1	3	1		1	4	1					○			
사회복지사상(사회 사상사)	2	3	2	1	1	4	2			○			○		
인간관계와 코뮤니케이션	1	3	1		1	2	1							○	
사회구조와 이탈행위	1	3	1		1	3	1							○	
사회복지 자원론	1	3	1		1	3	1								
행동장애와 사회치료	1	3	1		1	4	1							○	
프로그램 실기	1	3	1		1	4	1							○	
		2	1			3	1								
경제학 원론	2	3	1		2	1	1	○				○			
정신 의학	1	3	1		1	3	1	○							
		3	2			2	1								
사회사업 방법론(총론)	2	12	1	3	1	3	1		○				○	○	
						3. 4	1								
		2	1												
사회복지와 법(복지법령)	6	3	5		6	3	3		○		○	○	○	○	○
						4	3								
		2	1			3	2								
사회사업 특강	3	3	1	2	1	4	1			○			○		○
		4	1												
	1	2	1		1	3	1			○					
교정 사회 사업	1	2	1		1	3	1			○					
논 문	1	2	1	1		4	1			○					
		2	1												
정치학 원론(개론)	2	3	1	1	1	1	2				○	○			
		2	1			1	2								
사회학 개론	3	3	2	3		2	1				○	○	○		
행정학 원론	1	3	1	1		1	1				○				
심리학 개론	1	3	1	1		1	1				○				
						3	1								
산업복지(노동복지)	4	3	4		4	4	3				○		○	○	○
문화인류	1	2	1		1	2	1					○			
계획 내용 작성	1	2	1	1		3	1					○			
사회 변동	1	2	1		1	4	1					○			

학 과 목 명	대학 수	학점 수	대학 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학년	대학 수	성심 여대	중전 대	한사 대	부산 대	서울 여대	중앙 대	이화 여대	서울 대
사회학 이론	1	3	1		1	4	1					(			
빈곤 예방	1	3	1		1	4	1								(
복지 재활	1	3	1		1	4	1								(

1977년 8개대학 대학원 교과 과정표

(○표는 대학과 중복
△표는 대학원 단독)

과목명(대학과 같은 것)	중전대	한사대	부산대	중앙대	이화대	서울대	비 고
인간행동과 발달(환경)	○	○	○		○	○	
사회복지 발달사						○	
케이스 웍	○	○	○	○		○	
구룹 웍		○	○	○	○	○	중앙대 이대는 구룹다이나막
지역사회조직사업			○	○		○	
사회조사	○	○	○	○	(	○	
사회사업행정	○		○	○	○	○	
사회복지정책(및 계획)	○	○	○	○	○	○	
사회사업실습	○	○	○		○	○	
사회통계(통계학)		△					
아동(청소년)복지(청소년문제와 사회개입)				△			
사회문제	○						
사회입법(사회법규)	△			△	△	△	이화여대는 사회복지 법령, 중대는 입법및 행정
사회개발론	△			△	○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				△			
청소년(비행)연구			○	△			
사회심리				△			
노인복지			○	△			
사회사업세미나	○	○	○				
심신장애자 복지					△		
의료사회사업(보건 및 의료복지)			○	○			
가정복지			○	○			
지역사회개발론				○			
사회보장						△	

과목명(대학과 같은 것)	숭전대	한사대	부산대	중앙대	이화대	서울대	비 고
정신사회사업		○					
사회복지제도 비교론		△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				
슈퍼비존	△		○	△	△	△	
사회사업이론				△		△	
사회사업 방법론(총론)	○	△	△	○	○	△	
사회사업독감						○	
산업복지(노동복지)				○	○	○	중앙대는 전공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 과목이 많음.
기타 대학원만이 개설하고 있는 과목수	2	5		20	5	4	

이 〈表〉에서 나타난 바를 第1部와 前章에서 서술한 內容의 反映이라는 點에서 본다면 몇 가지의 變化를 찾을 수 있다[20].

첫째, 開發的 機能과 巨視的 수준에의 參與를 意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課目이 새롭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社會福祉 政策과 計劃이 8個 大學에서, 社會開發이 3個 大學에, 人口問題와 家族計劃事業이 4個 大學, 그리고 社會問題가 8個 大學에 青少年 硏究가 3個 大學, 社會立法이 2個 大學, 社會保障이 2個 大學, 公衆 및 精神衛生이 3個 大學, 社會福祉制度比較論이 2個 大學, 地域 開發이 2個 大學 등이다. 이들 課目 외에도 1個 大學에서 설치하고 있는 課目으로서는 貧困豫防論, 統合社會事業, 地域社會, 社會構造와 일탈행위, 사회복지자원론, 사회변동 등이 있다. 이 외에 課目 名稱으로서는 분별이 되지 않으나 敎科 內容上 開發的 機能과 巨視的 수준에의 參與를 직접, 간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를 합치면 課目의 數가 증가될 것이다.

둘째, 社會的 要求와 現實에 관계되는 課目이 신설되고 있다는 點이다. 産業福祉가 4個 大學에서, 青少年 問題가 3個 大學, 그리고 대부분의 社會事業 特講이나 세미나(8個 大學 전부가 가지고 있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타 産業社會學, 職業지도, 老人문제, 복지재활 등이 1個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다른 제목의 강의에서도 그와 같은 內容을 다루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變化라고 할 수 있겠다[21].

세째로, 統合的 方法이 시도되고 있다는 點이다. 課目 名稱만으로는 매우 구분하기 어려운 點이 있긴 하지만 일부 大學에서 케이스 웍, 그룹·웍, 지역사회 조직론 등의 명칭을 없애고 社會事業方法論이라는 課目으로 대치한 것과 社會事業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을 시도하고 있는 것 등은 이러한 시도의 例라고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이 方法에 대한 作業化가 미비되었고 아직 일부의 批判的 見解가 남아 있으며, 또한 기술상 매우 힘든 作業이

20) 韓國社會事業敎育者 세미나—교과내용 분석 자료—, 1976, 韓國社會事業大學 協議會.
21) 1976, Ibid.

네째로, 아직 傳統的 方法論 중심에서 完全히 탈피하지는 않고 있으나 선택과목 수가 확대되어 지고 학점 배정 비율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은 뚜렷하게 보여 진다. 실제로 大學 卒業 學點이 140학점으로 줄어 지고, 따라서 전공이수 과목이 63학점으로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問題를 표현하고 있거나 내포하고 있기는 하겠으나 變化로의 노력을 말해 주고 있음은 틀림없다[22].

다섯째로, 實習의 內容과 경향이 바뀌었다는 點이다. 〈表〉에서는 8개 대학 모두가 實習을 6학점 이상 요구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이 實習은 종래 方法論 중심의 기존 實習場 배치를 止揚하고 現實的 문제를 직접 찾아 社會事業的 介入의 出發點을 찾는다든가 또한 家族計劃事業이나 政府機關 또는 協議會 등에 나가서 계획적인 測面에의 參與도 기하고 있다는 點에서 變化가 있다. 뜨한 일주일에 하루를 實習場에서 보내는 대신 放學 期間을 이용한 Block Placement가 점차 增加하고 있어서 外的制限에 대한 現實的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경향으로서만 그치고 있으며, 아직 實習 敎育 본래의 구실을 다 하기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變化 이외에 全體的인 現象으로서의 현재 敎科課程의 特性을 대다수 學校가 함께 설치하고 있는 課目을 중심으로 分析할 수 있겠다. 社會福祉槪論, 人間 行動과 環境, 케이스·웍, 그룹·웍, 地域社會組織論, 社會事業調査, 社會事業行政, 社會福祉政策 및 計劃, 社會事業 實習, 社會問題, 社會立法 또는 法規, 社會事業 세미나 또는 特講, 社會福祉 發達史 등이 8個 大學 중 7個 大學에 설치되고 있다. 이들 學課目은 학점수나 필수 또는 선택의 면에서는 비록 學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각 학교의 중요한 敎科課程 부분을 形成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敎科課程 類型에서 많은 變化가 있긴 하였으나 아직도 根本的인 變化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問題와 課題

國內·外的으로 그리고 對內·外的으로 나타나는 要求와 限界 간에 調和를 유지하고 現實的이면서도 發展志向的인 敎科課程을 구성해야 하는 현재의 狀況은 많은 어려운 問題에 부딪혀 있다.

첫째, 敎科課程 구상에 있어 제일 먼저 제기되는 設問이 敎育目的이라 한다[23]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질 못하다. 前章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大學水準에서의 社會事業 敎育이 그 나름대로 價値가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專門敎育을 해야 한다는 點에까

22) 환언한다면, 이 경향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論議의 여지가 있겠으나 方法論에의 집중적인 강조에서 다른 것으로의 分散이라는 意味에서는 고무적인 現象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3) R.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1950.

진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과연 어떤 수준의 能力을 가진 專門家를 生産할 것인가에 대한 具體的인 行動上의 目標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초기의 敎科課程은 美國 모델의 수입이라는 點에서 많은 批判을 받았으나 理論上의 敎育目的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이냐 또는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긴 했었으나 目標에 있어서는 명백하였다고 하겠다. 새로운 경향을 反映한다는 面에서 目的을 세운다면 무엇보다 먼저 國家開發이라는 맥락 속에서 社會福祉를 관련시키고 점차 社會專業 敎育制度와 社會的 要請으로 좁혀 나가면서 具體的인 目標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24].

大學水準에서의 社會事業 敎育은 1) 卒業 後에 專門社會事業家로서 實踐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하고, 2) 보다 고차원적인 專門 訓練이나 大學院 敎育을 받을 준비가 갖추어 지도록 하고 3) 非社會事業系列 학생에 대해 社會福祉 일반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25].

大學 敎育의 일반적 目的 정도는 우선 成文化 해 두어야 할 것 같다[26]. 물론 이러한 일반 目的이 敎科課程 구성에 충분하지 못하다. 보다 더 具體的인 行動上의 目標가 添加되어야 하며, 技術上의 目標도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한다[27]. 그럼으로서 敎課目의 內容과 組織이 가능한 것이며, 나아가 能力 수준상의 基準이 있게 되어 敎育의 質을 측정할 수 있는 手段이 생기게 되며 質的 向上에 도움을 주게 된다.

둘째로, 새로운 경향에 따라 變化가 있긴 하였으나 이것이 體系的인 理論을 가진 모델이나 확고한 方向, 뚜렷한 目的, 그리고 統合的인 眼目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部分的인 添加와 배제가 연속된 것이어서 統合性과 體系性이 결여되고 전체 과목과 시간 간에 연결성이 부족한 現象을 빚어 내었다. 例를 들면 同一 課目을 설치하고 있는 大學間에 학점수와 학년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과 한 大學에 있어서 과목 배열이 학년 순으로 볼 때, 앞뒤가 잘못되고 있다는 點, 그리고 類似 과목의 중복 등이 〈表〉에서 나타나고 있는 點은 이와 관계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社會開發 課目을 例로 본다면 社會開發에 參與하는 社會事業家가 微視的 접근 방법을 어떤 分野에서 어떻게 活用할 것이냐를 알아야 하는 問題와 盲兒를 상대하는 社會事業家가 비타민A 결핍과의 關係를 알고, 이의 豫防에 대해서 知識을 가져야 제대로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社會開發과 이에 관련된 分野를 關係시켜야 한다는 문제 등은 앞서 지적한 과목간의 연결성 문제이다. 또한 社會科學 行動科學 등 基礎 과목이 獨立된 과목으로 많이 있는데 이들 과목도 반드시 社會事業實踐이라는 基本 構造 속에서 體系化되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價値가 없고 낭비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點에 유의하여 基礎科學과 社會事業實踐 과목과의 사이에 媒介 과

24) T. M. Brigham: Social Work, for Asia.
25) D. Brieland & others, op. cit p. 400.
26) 현재 이와 같은 일반적 교육 목적이 없으므로서 敎課目 자체의 目標가 가진 의미가 없게 되었며 多樣하고 많은 敎課目의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7) Eessentials for undergraduate Social Work Teachers, Council of Social Work Education, 1969, p. 8.

욱을 두는 방안도 있다[28]. 교과과정 構成에 있어서는 과목의 數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과목마다의 뚜렷하고 행동적인 目標를 설정하고 이를 다른 과목의 그것과 동시에 일반 敎育目的과 연결시켜야 하며 가능한 限 교과과정에 表示되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과목 명칭을 보다 社會事業과 관련시키는 方向으로 풀이해서 설치함도 바람직한 方法의 하나이다[29].

세째로, 大學院과의 關係가 매우 애매하다. 〈表〉에서 나타나 있듯이 大學院에 開設된 과목과 大學에서 개설된 과목이 그 명칭상 同一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실제 敎育에 있어서 "보다 높은 水準"의 內容을 취급하고 있겠으나, 과목에 있어서는 具體的인 명시가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大學水準에서의 敎育 目的이 뚜렷하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水準"의 槪念과 內容이 명백한 기준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과목 명칭이 同一하다 하더라도 大學과 大學院 간의 영속성이 분명하게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그렇지 못함으로서 大學에서 배운 것을 大學院 과정과 관련시키기가 어렵게 되며 大學院에서 學習하는 社會事業實踐上의 높은 技術을 大學에서 요구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方法上의 기술 수준에 관한 명백한 구분은 무엇보다 大學과 大學院 간의 구별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成文化 함이 必要하며 동시에 大學院 수준의 敎育 目的을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大學院 敎育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라 하겠다.

네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社會事業에 대한 一般的 認識이 되어 있지 못하여 專門分野로서의 役割이 社會制度나 構造上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社會事業家像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社會事業 敎育의 土着化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社會事業家의 역할은 계속되는 社會的 要求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했고 敎科課程의 土着化의 機會를 주지 않은 채 계속 바꾸어야 했기 때문에 社會事業家像이나 나아가서 社會事業 본연의 基本的 槪念 構造에 대한 理解에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케이스·웍을 열심히 공부해서 精神科에서 일하는 精神社會事業家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 또 統合的 접근방법을 배워서 家族計劃事業을 해야 한다고 하니……"하는 社會事業學科 卒業生의 탄식은 단편적이나마 이러한 문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社會事業家란 어떤 職場에서 어떤 일을 하는 專門家냐? 이 전문가를 養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 문제가 실제 社會制度나 構造 속에서 전문 직업적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現實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社會事業 敎育者 일부의 머리 속에는 美國과 같은 先進國家에 있어서의 大學院 卒業生이 가지는 專門家의 像이 남아 있겠으나 이러한 像도 開發途上國에서 大學 수준을 卒業한 社會事業家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실제 敎育에 임할 때 이들에 대한 實際的인 同一視對象이 없으므로서 혼란한 경우가 많

28)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The Place o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in Social Work Education, 1959, NASW. p. 95.

29) Minnesota, Pennsylvania, Kentucky 대학 교과과정 참조.

은 것이다. 이러한 狀況이 社會事業 本質에 대한 혼란과 의문을 낳게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本質的인 基本 槪念構造가 빠져버린 敎育을 하게 되는 위험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類型과 水準의 敎育에 있어서도 社會事業 本質과 基本的 槪念에는 變化가 없을 것이라는 點이 敎育過程에서 明白하게 되어야 하며, 뚜렷한 社會事業家像을 현실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專門社會事業의 基底에 흐르는 哲學이 우리의 傳統的 文化에서 發見된다면 錦上添花格이 될 수 있다.

Ⅲ. 結　　論

1950年代 중반기에서 부터 일기 시작한 종래의 社會事業敎育 모델에 대한 批判과 새로운 變化에로의 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없이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아직은 갈등과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이 사실은 현재의 敎科課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社會事業의 屬性이 現實參與와 實踐을 前提로 하고 있으며 또한 社會的 要求가 急變하고 있는 오늘날의 社會에 있어서는 敎科課程은 계속 變化하게 되어 있고 또 이 變化를 건설적으로 受容할 수 있는 敎科課程이 되어야 한다. 世界的인 경향이 각 나라의 國家的 開發에 社會事業이 적극 참여하고 공헌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제 韓國도 우리에게 맞는 敎科課程을 構成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고 適用될 수 있는 모델이 있는 時代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종래 土着化되지 못하고 成立되지 못한 理由 때문에 社會事業이 가진 本質과 基本的 槪念構造에 혼돈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 오히려 이를 우리의 文化와 價値에서 여과해서 우리 社會에 맞는 哲學的 基礎를 規明하고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基礎 위에서 國家開發과 社會的 要請을 여러 측면에서 分析하여 社會事業이 차지할 位置를 잡고 실제로 役割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敎科課程을 짜야 한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 이제 開發的 機能遂行과 巨視的 수준에의 參與라는 새로운 役割이 부각되었으니 이를 다루는 敎科課程이 보다 具體化 되어서 韓國社會事業家의 像을 구축할 수 있는 能力者를 敎育 배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도화된 産業社會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産業化와 都市化는 社會事業 機能에 영향을 줄 社會關係에 있어서의 變化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계되는 現實的 問題와 未來 問題와 未來 社會의 필요를 끊임없이 찾아 敎科課程에 반영하여 國民의 期待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건하에서 生産的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創意的이고 自信感에 넘치는 社會事業家를 養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社會事業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大學의 現實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함께 충족할 만큼 되어 있지 못하다. 制限된 조건하에서는 可能한 것을 찾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것이다. 우리나

있는 限 大學마다 스스로의 敎科課目을 開發함이 바람직한 것이며 大學에 따른 特殊性 있을 수 있는 것이다.

巨視的 수준과 더불어 微視的 수준에의 參與役割도 있으며 開發的 機能과 더불어 治療 機能도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事業家가 參與하고 공헌해야 하는 分野는 매우 넓은 것다.

1970年 現在 美國에는 社會事業敎育協議會에서 승인을 받은 大學 수준의 敎育프로그람 215個나 되며 大學마다 相異한 社會事業 敎科課程 프로그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간에는 基本的 類似性이 있으며 이것이 社會事業敎育協議會가 요구하는 知識과 能力上 共通的 基礎를 形成하고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보면 첫째로, 人文, 社會, 行動 및 生物的 科學 지식을 포함하고 있 敎養基礎 課目에 統合되어 있고 둘째로, 社會事業實踐, 社會福祉政策 및 計劃, 人間行動 환경 그리고 社會調査分野에서 敎科 내용이 제공되고 있고 세째로,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 충분히 實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實習 經驗을 요구하고 있으며 네째로, 학생들로 하여 學校에서 배운 모든 것을 統合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서 技術을 익혀야 하도록 되어 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대부분의 社會事業 學科의 학생이 1年 내지 2年間 敎養課目을 이수하 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表〉에서 나타나 있듯이 둘째로 지적된 과목은 모두가 모든 대학에서 共通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첫째와 둘째에 있어서는 대학간에 共通的 基礎가 마련되고 있다 하겠다. 다만 세째와 네째의 問題가 남아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의 最大 問題인 實習時間과 實習場所 그리고 實習 담당자와 직접 관계있는 일이다. 각 大學의 敎育이 目的한 바에 따라 實習地를 開發하고 創造함이 바람직한 것 같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大學의 特殊性을 살릴 수 있는 機會가 되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社會事業敎科課程硏究는 이제 共通的인 知識과 能力을 보장하고 최저 基準을 구성하는데 全念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계되는 과목의 敎科 내용과 目的이 可能한 한 具體化되고 細密化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課目간에 그리고 全體와의 關係에서 連結性과 體係化가 이루어지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및 資料

1. W. Boehm: Objectives of the Social Work Curriculum of the Futur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59.
2. H. Bismo: The Place o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in Social Work Education.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59.
3. D. Brieland & others: Contemprorary Social Work, 1975. McGraw-Hill
4. A. Desai & others Ed: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aching, 1971. Bombay.
5. I.A.S.S.W: New Themes in Social Work Education. 1972. N.Y.
6. F. Loewenberg ed: Essentials for Undergraduate Social Welfare Teachers, 1969.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N.T.
7. University of Minnesota Bulletin 1975~1977.
8. University of Pennsylvania Bulletin. 1975~1977.
9. College of Social professions, University of Kentucky Bulletin 1977.
10. Report of The National Workshop on Social Work Education, 1968~1972. The Philippines.
11. Course Syllabin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in Social Work, The Phillippine School of Social Work. Philippines Womens' University. 1973.
12. 서울대학교 교과정, 대학과정(1976), 대학원과정(1977), 서울대학교
13. 社會福祉敎育硏鎖會 報告書, 1975, 보건사회부.
14.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연찬회 보고서, 1965, 중앙대학교.
15. 한국사회사업가대회보고서, 1969, 한국사회사업가협회.
16. 사회사업교직자 연찬회 토의자료, 1969, 한국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17. 사회사업교육자세미나 토의자료, 1972,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18.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사업교육세미나 자료집, 1973,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19. 사회사업교육자세미나 토의자료, 1973,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20. 사회사업실습교육세미나 자료집, 1975,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21. 교과과정연찬회 자료집, 1976,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22. 80년대를 향한 사회사업교육과제 자료집, 1977, 한국사회사업대학 협의회.
23. 사회사업교육의 과제와 전망 토의과제, 1977,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24.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Kenya 1974. IASW.
25. Social Realities and the Response of Social Work Education in Asia, Puerto Rico, 1976,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chool of Social Work.
26. 昭和51年度 學生便覽 日本社會專業大學.
27. 昭和46年度 日本社會事業學校聯盟 社會福祉敎育 Seminar 報告書.
28. 今日の社會福祉敎育, 1972. 國際社會福祉協議會 日本國委員會.
29. 1959年度 서울대학교 교과과정표, 서울대학교.
30. 1977년도 서울대학교, 이화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전대학교, 서울여자대학, 성심여자대학, 한국사회사업대학, 부산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표.

A Study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Social Work in Korea

Nam, Sae-J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last five years several workshops and seminars among social work educators, in and out country, has taken place. In those gatherings there has been criticism on American model on which curriculum of social work in Korea has mainly based, and many proposals which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consider and adopt for developing their own curriculums. The proposal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Specification of developmental functions of social work should be made so that the curriculum could involve. It also must come from own societal needs and own national development task.
2. Social work should participate and make contribution to plan and solve the main social problems in own countries.
3. Clarification of educational objective in undergraduate level should be made and one of them must be related to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4. There should be the courses which provide the content of macro level participation.

How much of the proposals are reflected in the current curriculum of Korea? What are the problems Korean social work education has been faced in connection with reflecting the proposals? What kinds of task we should or could perform in order to adopt the proposals? These are the questions which deserved to be studied. The followings are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1. The new courses such as social welfare policy and planning, Social Development, Population Dynamics and Family Planning, Social problems, Special Issues in Social Welfare, etc, are placed in the curriculum.
2. Though the new courses are added the courses of case work, group work, and

community organization are strongly remained. It means that integrative method is not quite adopted and that conflicts are taking place between new and old fashion.

3. Fieldwork placement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concurrent to block and from social work method oriented to social problem oriented.
4. There are lack of integration among the all courses, of consistency between pre and post courses and of connection among the related courses.
5. Estabishment of image of social worker with B. A. degree should be urgently taken place. It can't be done by social work field alone but by cooperation with all the forces related to the social work practice.
6. B. A. graduate should have a common base of knowledge and competence. It could be come from the clear and specified objectives of undergraduate level education. And agreement among the member schools on the objectives can call on the fundamental similarities in each curriculums. Different programs from one school to another can be tolerated as long as there are fundamental similarities among the schools.

Basic concepts and framework of social work should be kept clearly. It is a slow and long process to make social work recognized as a profess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Korea can't be an exception. Failure of having social work be indegenous can't be the reason to refuse and change the basic concepts of social work.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 which social work education in Korea must achieve in the near future is to establish the minimum requirement courses in the curriculum. Social work field, on the other hand, must find the positions for the social worker in the various settings and institute. Clear role and image of social worker can be obtained by doing that.